

# 고창군 '자원순환 실천' 생활화

###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 개최 '재활용 동네마당' 122곳으로 확대 페트병 회수기 등 주민 실천 유도 군청 직원·군민에 환경 교육 시행

고창군이 자원순환사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를 열고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는 행정조직, 군의원, 군민대표, 비영리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꾸려져 있다.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방향제시,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재정·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자원순환 분야 사업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고창군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내년도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고창군은 올해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35개소를 추가 설치, 총 122개소로



지난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을 확대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2대 운영을 통해 좀 더 쉽게 주민들이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분리배출에 대한 맞춤형 교육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고창군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계획

이다. 강필구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 의견을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 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분뇨처리 기술 지원해 축산 악취 잡는다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29개 농가 순환 활성화 등 추진

### 국비 21억 확보...민원 해결 기대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55개 시·군·구가 신청해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합산된 평가 점수에 따라 최종 33개 시군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전국 상위 5개 시군에 포함됐고 도내에서는 1위에 올라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21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축산업이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공모·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관내 29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방식개선, 축산악취저감, 경축순환 활성화분야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군에서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축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 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진행한 2023년 가금농가 축산환경 개선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산농가 냄새저감 컨설팅 등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악취저감 사업과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교육 추진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축산농가는 악취민원에 대한 시름을 줄이고 동시에

군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악취저감사업에 더불어 각 축산농장에서도 자발적인 악취개선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군민체감형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불법·불량 '종자·종묘' 단속

### 연말까지 종자업 등록·수입판매 신고 여부 등

정읍시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합동으로 불법·불량 농산물 종자·종묘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불법·불량 종자·종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자세한 점검 내용은 종자업(육묘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이다.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업체에는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 종자·종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에 대한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자·종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유통제도 등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고 또는 문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현장시장실' 민원 19건 해결

### 363건 추진상황 보고회...도로 정비 등 114건 신속 추진 주문

남원시가 지난 1개월간 지속했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들을 점검했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 주재로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건의사항 363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해결 19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 156건 ▲검토 129건 ▲상급기관 건의나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 31건 ▲법령·제도 및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수용 곤란 사안 25건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전체 건의사항 중 114건이 도로 확보

장,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주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된 만큼 시급한 사항은 최대한 빨리 해결에 나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주문했다.

또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연내 추진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완료하고 법률, 제도, 예산 등의 제약으로 수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기업체 및 사회복합시설 등 현장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남원시장이 간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이어 갈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하반기 정읍 귀농귀촌학교 교육생 모집

### 15일까지...다음달 11일부터 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이사장 허삼권)가 2023년 하반기 귀농귀촌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예비)귀농귀촌인 또는 5년 이내 귀농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귀농귀촌학교는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귀농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

업교육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해마다 1-2회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510명의 귀농·귀촌인을 배출했다.

교육 기간은 10월11일부터 10월25일까지이며, 평일과 토요일 합숙형교육으로 진행된다. 기초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100시간 인정)을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나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팔·백향과 활용 디저트 상품 개발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선정

남원시가 농촌진흥청의 '2024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지역 내 소면적으로 재배되는 자원을 융합해 특산물 개발 및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분질미와 팔, 아열대작물(백향과)를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 상품 개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판매·관광 등의 산업 활성화로 연계해 지역 내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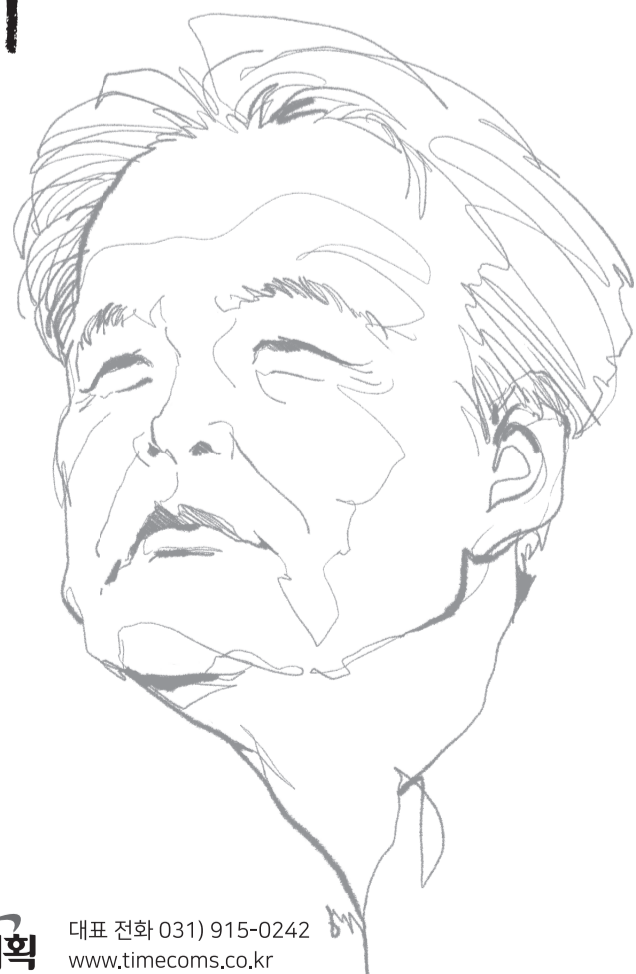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